

“코로나19가 앓아간 축제, 이를 어쩌나”

제주경제 침체 악순환... 들불축제·양벚꽃축제 모두 취소 수백억 경제효과 사라져 지자체·단체·상인·주민 속앓이

바야흐로 봄을 맞은 제주도 곳곳은 이미 셋노랑유채꽃으로 물들었고, 매화와 목련까지 활짝 꽃을 피우고 있다. 이제 열을 뒤면 벚꽃까지 가세할 전망이다. 전 세계로 번져가는 코로나19의 위력 앞에 봄과 관련한 축제는 모두 취소돼 많은 이들의 아쉬움을 사고 있다.

단지 즐길거리가 사라져 아쉬운 이들도 많지만, 수십만의 인파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해온 봄 축제가 사라지게 되자 축제를 준비해온 지자체와 자생단체, 상인, 주민들은 속앓이 중이다.

제주시는 지난달 23일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 제23회 제주들불축제와 제22회 제주양벚꽃축제의 전면 취소를 발표했다. 지난해 28만1800여명이 찾았던 제주의 대표축제인 들불축제 개최를 포기하기까지 제주시는 장고에 장고를 거듭했다.

들불축제 개최를 위해 제주시가 책정했던 직접 예산만 16억4000만원. 제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취소 발표 이후 집행된 예산은 없고, 축제 관련 예산은 삭감돼 추경에 편입돼

코로나19 대응 등 다른 용도로 쓰이게 될 전망이다.

들불축제를 준비하던 자생단체와 상인들은 울상이다. 들불축제를 통해 한 해 사업비의 일부를 충당하던 자생단체들은 고민거리를 안게 됐다. 상인들 역시 한 해 주요 수입원인 들불축제 매출을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이어서 울상이긴 마찬가지다. 제주시가 추산하는 지난해 들불축제의 소비지출효과는 183억29만원, 생산과급효과는 393억2061만원에 달했다.

제주시는 들불축제와 함께 대표축제 가운데 하나인 제주양벚꽃축제도 취소했다. 지난해 축제엔 31만1300여명이 참가했다. 축제가 취소되면서 올해 벚꽃축제 예산 2억8000만원도 전액 삭감됐다. 벚꽃 특수를 기대했던 지역 자생단체와 전농로의 상인들 역시 재미를 기대할 수 없게 됐다. 시가 추산한 지난해 축제 기간 소비지출효과는 154억5363만원, 생산과급효과는 336억1138만원이었다.

코로나19로 지역사회 모두가 속앓이를 하게 된 상황이지만 다행히 축제 취소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는 거의 없었다. 생존이 우선이라는 공감



유채꽃 명소로 유명한 서귀포시 영동물계곡 일대에 9일 오전 유채꽃이 활짝 피었지만 찾는 이들이 거의 없어 쓸쓸한 모습이다. 연합뉴스

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라는 게 제주시 관계자의 분석이다.

서귀포시 상황도 제주시와 다를 게 없다. 서귀포시 역시 지난달 23일과 25일 남원을 가시리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제38회 제주유채꽃축제와 제22회 서귀포 유채꽃 국제걷기대회를 각각 전면 취소했다.

4월 8일부터 12일까지로 예정됐던 제주유채꽃축제 역시 지난해 16만여명이 찾았을 만큼 인기 있는 축제 가운데 하나다. 서귀포시는 1월 말부터 가시리 마을과 축제 추진위 관계자들과 개최 여부를 협의해오다 취소 결정을 내렸다.

제주유채꽃 축제의 올해 예산 2억4900만원 가운데 유채 종자 파종 등 내년 개최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빼고 전액 삭감됐다. 2019년 제주유채꽃축제의 경제파급효과는 130억원대로 분석됐다. 3월 28일부터 29일까지 열리기로 됐던 서귀포 유채꽃 국제걷기대회 역시 취소됐다.

서귀포시는 남원을 한남리의 한라산정경사리축제와 가파도에서 열리는 청보리축제까지 모두 취소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수백억원 대의 경제파급효과를 가졌던 도내 축제가 취소돼 지역경제 침체의 악순환도 그 골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연합뉴스

재점화된 잠복기 논란... “무증상 감염에 무게”

의료계 “발병 못 느끼고 격리해제 됐을 가능성 커” 격리 기간에 감염 가능성도 전문가 “심층 역학조사 필요”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최대 잠복기로 알려진 14일을 넘겨 확진된 사례가 잇따라 나오면서 ‘잠복기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신천지대구교회를 방문했다가 광주와 안산으로 돌아갔던 교인 3명이 자가격리에서 해제되고 한참 만에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잠복기가 14일 아니라 그보다 더 긴 것이 아니라

는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의료계와 보건당국에서는 증상이 없어 감염된 지도 모든 체 격리에서 해제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했다.

방치한 중앙감염병병원 센터장(서울대 의대 감염내과 교수)은 9일 “확진자들은 14일 전(자가격리 전)에 감염됐지만, 증상이 없었던 사례일 수 있다”며 “증상이 명확히 있었다면 모르겠지만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양성 나왔다면 잠복기 논란이 아닌 ‘무증상 감염’을 의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뿐 아니라 모든 호흡기감염증은 증상이 경미해 환자가 증상을 모르는 사례가 종종 있다”며 “감염된 뒤에는 14일이 지나서도 유전자 검사에서 양성이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사례만 가지고 최대 잠

복기 14일이 흔들리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격리 기간에 발병했으나 본인인증상을 인지하지 못해 격리에서 해제됐을 가능성을 가장 크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잠복기 기준을 더 늘리거나 격리기간을 더 늘려야 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며 “조사 결과를 보고 최종적으로 판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에서는 격리 기간에 다른 감염원에 노출된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임종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잠복기에 대해 고민을 하기 전에 확진자들이 자가격리 기간에 코로나19 감염원에 노출된 것이

아닌지부터 확인해야 한다”며 “역학조사 결과를 보고 이 사례를 어떻게 볼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자가격리 기간에 노출이 없었는데도 14일을 넘어 발병한 사례라면 전문가들이 모여 확진자의 상태나 체내 바이러스 수치 등을 면밀하게 논의해야 한다”며 “잠복기는 단순히 사례 몇 개만 보고 바꿀 수 있는 건 아니고, 여러 사례를 두고 전문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잠복기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에도 3번 환자의 밀접 접촉자인 중국인 여성이 잠복기를 넘겨 확진돼 잠복기 논란이 불거졌다.

이 여성은 3번 환자와 마지막으로 접촉한 지 16일 만에 확진 판정을 받아 28번 환자가 됐다. 당시 방역당국은 이 여성이 진통제를 복용해 잠복기 중 증상 발현을 인지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판단했다. 연합뉴스

“노인·임산부, 마스크 호흡불편 땀 사용 중지”

식약처, 마스크 제품 포장에 경고 문구... 주의사항 추가 “의사 등 전문가와 상의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예방하려고 임산부와 어린이,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 등이 보건용 마스크를 썼다가 호흡에 불편을 느끼면 당장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고 보건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모든 보건용 마스크 제품 포장에는 “임산부, 호흡기·심혈관 질환자, 어린이, 노약자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이 불편하면 사용을 중지하고, 필요하면 의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란 경고 문구가 사용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의약품 표시에 관한 규정’ 고시를 일부 개정해 2018년 10월 25일부터 보건용 마스크 제조업체에 이런 경고내용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이전까지 제조업체는 사용상 주의사항에 ▷수건, 휴지 등을 사용해 호흡기를 감싼 다음 그 위에 착용하지 말 것 ▷마스크 안쪽이 오염됐을 때는 사용하지 말 것 ▷세탁해서 사용하지 말 것 ▷면체를 찌그러뜨리거나 변형해서 사용하지 말 것 ▷착용 후 마스크의 표면을 만지지 말 것 등 보건용 마스크의 올바른 착용 방법이나 필터 손상 주의 등만 표시했다.

이런 상황에서 감사원이 임산부, 노인, 어린이 등 고위험군 소비자를 어떻게 볼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여성은 3번 환자와 마지막으로 접촉한 지 16일 만에 확진 판정을 받아 28번 환자가 됐다. 당시 방역당국은 이 여성이 진통제를 복용해 잠복기 중 증상 발현을 인지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판단했다. 연합뉴스

을 표시하도록 통보하자 식약처는 서둘러 사용상 주의사항을 추가하도록 했다.

당시 미국, 일본, 홍콩 등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이미 보건용 마스크에 호흡곤란 시 주의사항을 적도록 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보건용 마스크 착용 때 호흡이 더 힘들어질 수 있도록 만성 호흡기, 심장, 기타 의학적 증상 등으로 인해 호흡이 어려울 수 있는 사람은 보건용 마스크를 사용하기 전에 의료진과 상의하도록 했다.

일본은 영유아나 호흡기에 이상이 있는 사람은 보건용 마스크를 사용하지 말도록 했다. 또 마스크의 냄새가 신경 쓰이거나 숨쉬기 힘들다고 느낀 경우,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도 사용을 중지하도록 했다.

홍콩도 연장자나 만성폐질환자, 중풍 등 질병이 있는 사람, 임산부는 마스크 착용할 때 불편을 느끼면 사용을 중지하고 의사와 상의하도록 했다.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마스크에는 보건용 마스크 제품에는 ‘KF80’, ‘KF94’, ‘KF99’가 적혀있는데, KF는 ‘코리아 필터(Korea Filter)’를, 숫자는 입자차단 성능을 뜻한다.

‘KF80’은 평균 0.6μm 크기의 미세입자를 80% 이상 차단해 황사·미세먼지 같은 입자성 유해물질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할 수 있다.

‘KF94’, ‘KF99’는 평균 0.4μm 크기의 입자를 94%, 99% 이상 각각 막아 황사, 미세먼지 같은 입자성 유해물질과 신종플루 등 감염원으로 부터 호흡기를 보호할 수 있다. 연합뉴스



경북도, 필터 교체형 면마스크 개발 경북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대란이 빚어짐에 따라 자체 기술력으로 면 마스크를 만들어 보급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제품은 면 마스크에 부직포 필터를 날마다 교체하며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KF94 급은 아니지만 완화된 마스크 착용 방침에 따라 비말 차단용으로 사용 가능한 기준에 적합하다고 도는 설명했다. 연합뉴스

상 장
제주혁신성장대상
[나눔에너지 대표 양지혁]
위 기업인은 제주지역 주력산업육성사업을 통해 기업 육성발전과 일자리창출 등 제주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우수 사례로 선정되어 이를 널리 알림과 동시에 이 상을 수여합니다.
2019년 11월 5일
(재)제주테크노파크 원장 허영호

나눔에너지는 제주도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태양광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글로벌 회사입니다.

따뜻한 에너지를 만드는 기업,
나눔에너지
인공지능보유 / 벤처인증기업 / 고용우수기업

- 현대에너지 솔루션 소프트웨어 계약 성사
- 제주지역 단일공사 1MW급 최초 스크류공사 시행 (시공성 우수, 안정성 우수_인발테스트 리포트 결과 기준치 대비 1.5배 강함)
- 중소벤처기업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테크노파크 주관 제주지역 우수사례업체 선정, 제주혁신성장대상

"도내 1 금융권 최소 금리(2% 후반 ~ 3%초반대)로 금융까지 해결해 드립니다."

2019.06
제주도청 고용우수기업 선정 / 한화 큐셀 (Q-CELL) 제주도 큐파트너 협력기업

2019.04
벤처기업 인증 획득

2018 - 19
2년연속 제주도 에너지공사 협력사 선정

(주) 나눔에너지 | 제주도 제주시 첨단로 213-3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스마트빌딩 211호
시공문의 | TEL. 064 - 745 - 0420
FAX. 070 - 8812 - 0420